

책의해 사업확정 공식행사 돌입

19일 세종문화회관서 선포식... '독서진흥법' 제정 중점 추진키로



책의 해를 맞아 책의해 조직위원회가 올 한해동안의 행사일정을 발표했다. 사진은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출판문화관.

지난해 말부터 본격 가동해온 책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낙준출판협회장)는 지난 1월1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책의 해 선포식을 갖고 공식행사에 들어갔다.

책의 해를 맞아 조직위원회는 '책을 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를 주제로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하면서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이벤트보다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서의 좋은 책읽기 행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책의 질을 높여 책을 통한 모든 문화장르의 향상효과까지 확대하는 지속적인 행사를 큰 줄기로 책의 해를 맞이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우리땅에서 책의 역사를 찾기위해 명저와 관련된 유적지, 사적지 또는 사건들의 거점을 찾아 1차적으로 간단한 표지를 세워 역사와 함께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책의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을 문화여행의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책의 문화총서」발간과 한국출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출판 1천3백년전」도 기획하고 있다. 8월에 열리는 대전 엑스포 기간중에는 「무궁화광다라니경」부터 「고려대장경」 등 금속활자본 및 신식 납활자본 등을 체계적으

로 전시, 우리 출판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 독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조직위원회는 공공건물의 건축비 일정률(1%)을 의무적으로 도서실투자에 쓰게 하는 '독서진흥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정기국회때 상정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도서전시회를 5월중 무역센터전시장에서 열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내의 전출판사들이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외에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출판사도 참가하는 국제도서전성격을 띄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에 출판사별로 출간되는 양서 1권에 책의 해 기념로고를 표지에 인쇄, 연말에 기념도서전을 개최하며, 1년동안 소식지「북도피아」(가제)를 발행해 모든 행사의 성과를 기록하고 홍보하는 보고서로 활용한다.

한편 책의해 조직위원회는 지난 12월16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책의해 조직위원회 현판식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형두부위원장은 "책의 해 사업은 단발행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연말에 책의 해가 끝나면 조직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출판협회로 이관, 지속적인 책읽기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책의해 사업에 따른 재원은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면서 "현재 문예진흥원에 11억5천만원을 지원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각 출판사들이 이익 사업에 참가하도록 유도해서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재원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태백산맥」한길사서 재출간 예정

저자 조정래씨와 한길사간의 위조인자 법정시비로 1년8개월동안 출판되지 못했던 대하소설 「태백산맥」 전 10권이 한길사에서 다시 나오게 됐다.

조정래씨의 출판권부전제 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서울민사지법이 지난 달 초 "한길사가 가짜인지를 사용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쌍방 당사자의 화해가 이뤄져 22일 재출간에 합의했다.

한길사는 94년 12월까지 출판계약이 유효함을 확인, 우선 1월초 2만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4천3백원이었던 이전의 권당가격은 그동안의

인상요인으로 5천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계몽사 '책읽는 어린이 상' 공모

계몽사(대표 김준식)는 어린이 독서운동 활성화를 위해 '책읽는 어린이 상'을 오는 2월22일까지 공모한다.

공모작품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60cm이상 1백50cm 이하로 책을 읽는 어린이 형상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응모시는 작품의 전후측면을 촬영한 슬라이드 필름과 작품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심결과는 2월26일 발표한다. 한편 계몽사는 당

선작품을 복제품으로 다량제작해 연차적으로 전국 각 국민학교에 기증할 계획이다.

진선출판사, 야생화사진집 펴내

진선출판사는 최근 우리 자연속에 살아 숨쉬는 야생화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사진집으로 펴냈다.

계절별로 전 4권으로 발행된 이 사진집은 액자용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야생화만을 각 계절별로 10장의 사진으로 꾸몄고 꽃설명 스티커를 첨부해 액자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원작품 저작권시비 법정서 일단락

재판부 "저작권 소멸시효 지났다" 원고청구 기각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구랍21일 6·25전쟁 당시 실종된 춘원 이광수씨의 3남 이영근씨가 춘원의 작품 「무정」 「흠」 「사랑」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출판했다며 (주)문학사상사(대표 박공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에서 춘원이 북에 납북됐으나 호적에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춘원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등에 보도된 북에 남아있는 춘원의 묘지 사진 등을 볼 때 춘원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지적소유권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때부터 30년간 유효한데 사진에 나타난 묘비의 사망연도가 51년으로 되어있는 만큼 저작권 소멸시효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춘원의 3남인 이씨는 "춘원이 납북돼 사망했다는 풍문만 있을 뿐 실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지난 3월~5월 사이에 춘원의 작품을 차례로 펴낸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었다.

김영사, 저작권대행사 설립운영해

김영사(대표 박은주)가 저작권 대행사인 트랜스 퍼시픽 미디어를 설립했다.

첫 사업은 정명화 정명훈 등 세계적인 음악가 세명을 키워낸 정트리

오의 어머니 이원숙씨의 자전적 수필 「너의 꿈을 펼쳐라」의 중국수출로, 중국에이전시와 계약을 끝냈다. 이 책의 수출을 기념하기 위해 정트리오의 중국 공연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프리벨 아동잡지 「뽀뽀」 창간

한국프리벨과 홍콩 GDS출판사가 공동편집한 아동잡지 「뽀뽀」가 최근 창간 됐다.



2~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잡지는 작은 판형(19×20cm)에 박엽지로, 그림위주의 구성을 보여 주는데, 한국어판에는 이영석교수의 부모교육론이 실린 「어머니 노트」가 부록.

출첩 10대뉴스 1위 '책의해 선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는 「92년 출판계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출첩은 뉴스선정을 위해 언론계, 학계, 출판계 등 전문가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출판계 10대 뉴스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1위가 '93년 책의 해 선정' 이고, 2위는 '교보문고 재계점 및 영풍문고 개장'으로 나타났다. 또 3위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 정착 4위 '출판·인쇄업 개방정책 변경' 5위 '도서상품권 발매 1백만장 돌파' 6위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남북통일안 확정' 7위 '서울출판유통기공식' 8위 '출판물 외설시비' 9위 '국립중앙도서관 문헌자료 온라인 서비스 실시' 등이며 10위는 '역사 인물소설 붐'이 차지했다.

미광수·장석주씨에 실형 선고

서울 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판사는 지난 12월28일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미광수씨와 발행인 장석주씨 등 2명에 대한 음란물 제조 및 반포사건 선고공판에서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대학교수와 유명 출판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성행위 묘사로만 일관하는 책을 제작, 반포한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두사람은 소설 '즐거운 사라'를 저술, 발간하면서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로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이유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두차례에 걸친 제재결정을 받고도 책을 계속 발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외래어발음·표기법 문제점 지적

이미 우리말로 굳어졌거나 널리 쓰이고 있는 생활용어, 고유명사들

의 외래어는 표기대로만 읽을게 아니라 국어의 음운과 대중의 언어습관에 맞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언론외래어공동심의위원회(위원장 안병희)는 지난 12월23일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외래어의 부자연스러운 발음문제를 논의한 끝에 "관용어로 널리 쓰이는 외래어를 우리말답게 발음할 수 있도록 외래어 발음규정 등 현행 외래어표기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심의위는 이에 따라 국어심의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결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출판연구소 전국민 독서실태 조사

한국출판연구소는 93년 책의 해를 앞두고 전국민독서실태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1차간담회를 구립23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한국출판연구소가 전국민독서실태조사사업에 대해 마련한 간담회 전경.

이날 간담회에는 출판관계단체, 언론계, 여론조사기관 등의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방향·방안·내용 등이 논의되었다. 출판연구소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생활

형태·매체접촉과 이용·독서량·도서선택·서점이용 등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하고 세부안을 마련중이다.

어린이 영어학습지 '키디캣' 창간

국민학교에서 영어가 특별활동 교과목으로 채택될 95년을 앞두고,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최초의 월간 어린이 영어 학습잡지 '키디

캣'(발행인 정효섭)이 창간됐다.

어학 전문잡지사 다락원이 일본 영어잡지사 ALC프레스사와 판권계약을 하고 12월호로 선보인 이 잡지 창간호는 본책 외에 별책부록으로 영어날말카드놀이, 알파벳 찾기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게임북'과 25분 짜리 '키디 캣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체제로 발행될 예정이다.

한국출판문화상 수상자 선정 발표

저작상 2명 출판상 9개 부문... 2월5일 시상식

한국일보사가 주최하는 제33회 한국출판문화상 작품상 수상자로 '한국의 고지도'를 쓴 지리학자 이찬 전서울대교수(69, 대한민국의학원 회원)와 '사회의 철학'을 쓴 차인석 교수(59, 서울대 철학과)가 선

품상 상금은 각 250만원이며 시상식은 2월5일 오후 3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상: 이찬 「한국의 고지도」(범우사) 차인석 「사회의 철학」(민음사)

▲출판상: 事典 辭典 「한국문화 상징어사전」(동아출판사) 「우리말 큰사전」(어문각), 번역=이필령 「기술의 역사」(미래사), 기획=「뿌리깊은나무 민중사서전」(20권 뿌리깊은나무), 편집=「한국의 민가」(한길사), 사료=「개항문학총서」(여강출판사), 전집=「최순우전집」(5권 학교재), 아동=「유리카 한국 창작교육동화」(30권 학원출판공사), 장정=「마음글방」(세계사), 예술·사진=「한국의 야생화」(평화출판사)

어린이독서문화회, 우수도서 선정

한국어린이독서문화회(회장 권태문)는 92후반기 우수도서 20권을

선정, 구립24일 발표했다. 건전한 어린이 도서문화 고양을 위해 선정된 도서는 다음과 같다.

▲동시=「어린이 낭송 시집」(예림당) 「한국 명작 동시」(가나) 「착한 것 찾기」(미래내) 「바람과 빈병」(아동문예) 「어린 떠돌이」(창작과 비평) 「눈사람의 휘파람」(늘푸른) 「장미 스님」(아동문예) 「꽃보다 별보다 아름다운 이야기」(윤성) 「헨리와 말라겐이」(현암사) 「갯빛 토끼와 파란 장화」(신구미디어) 「두만강 해란강 전설」(지경사) ▲전기=「할아버지 손은 약손」(소년한국일보) 「저 월계관을 향하여」(백호) ▲역사=「흥미로운 국보여행」(산하) ▲수기=「안녕할 수 없는 세월」(지경사) ▲과학=「파브르 곤충기」(고려원미디어) 「참봉어의 사랑 고백」(웅진) 「재미있는 발명 여행」(명지) 「뇌속의 여행」(서광사) ▲체험담=「이럴때 아빠가 좋아요」(아동문예작가회 어린이재단)

청주시 '고본교과서 전시회' 열어

암울했던 일제시대와 해방후 열악했던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수 있는 '고본교과서전시회'가 구립21일부터 청주시 영동 충북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열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늘까지 한달간 열린 이 전시회는 충북학생회관이 마련한 것으로 「맹자」 등 조선시대 서당교재로 쓰였던 한문교과서 40종을 비롯, 개화기·일제시대·해방이후~70년대 등 시대별 초등교과서 550권을 선보였다.

詩歌 詩學研究

김대행 지음 / 10,000원

한국 시가가 지니는 문학적 본질을 언어와 형식으로서의 시학, 인간과 삶의 측면에서의 문학, 한국문학의 특징으로서의 웃음의 시학이라는 독특한 시각으로 장르와 계층, 시대를 넘어 세계문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술성과 객관성을 추구하였다.

* 문공부 추천 우수도서(1991)

조지 엘리어트의 소설연구

조정호 지음 / 6,000원

인간의 실체를 자연과 사회의 유기적 단계 속에서 포착한 최초의 소설가로 평가되고 있는 조지 엘리어트의 전 작품인 8권의 소설을 분석, 인간의 어떤 행위도 그것에 선행되는 행위의 피할 수 없는 결정론적 윤리성임을 보여준다.

* 문공부 추천 우수도서(1992)

미적 체험의 현상학(상·중·하)

미켈 뒤프렌 지음 / 김채현 옮김

상: 6,300원 중: 4,800원 하: 3,200원

현상학을 방법론으로 미학연구에 접근, 예술현상을 구성하는 작가와 작품, 관람자가운데 작품 수정과정과 의미를 천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관람자가 예술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까닭을 밝힘으로써 미학연구의 팔목할 성과를 이루고 있다.

* 문공부 추천 우수도서(1992)

전산물리학

스티븐 E. 쿠닌, 다윈 메레디스 지음

양종만·김재삼 옮김 / 25,000원

간단한 수학적 예제들을 통해 수치해석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고, 예제와 연구과제를 통해 고전역학, 양자역학, 통계역학 등의 기본적인 중요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원리들을 컴퓨터를 통해 체험하도록 하였다.

* 문공부 추천 우수도서(1992)

학술출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 360-3163, 360-3164 팩시밀리: 312-4312